

올 송년모임 12월 13일 마포 가든 호텔서 개최 사우회, 선물과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 매년 500여명 참석

김재철사장,
사우회 전폭 지원 지시

사우회는 올 송년모임 행사를 12월 13일 (월요일) 저녁 6시에 실시하기로 하고 서울 마포가든호텔측과 계약을 체결했다. 사우회는 MBC 총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했다.

MBC 김재철사장은 '선배들의 송년모임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경영지원국에 지시했다. 사우회는 이에 따라 참가선물과 공연프로그램 등 당일 행사내용을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다.

송년모임에는 매년 5백여명의 회원들이 대거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안부와 함께 친목을 다져왔다. 마포가든호텔(02-717-9441)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 내려 3번 출구로 나오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다.



▶ 지난해 12월 7일 마포가든호텔에서 열린 2009 MBC사우회 송년모임에는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진주·창원 합병 'MBC경남'으로 출범

지방계열사 광역화 첫 케이스, 10월 방통위 승인

진주문화방송과 창원문화방송은 9월 10일 여의도 MBC 대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진주·창원문화방송 합병안을 결의했다.

경상남도 전역을 시청권으로 하는 합병회사 이름은 'MBC경남'으로 결정됐다. MBC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광역화를 결의한 'MBC경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10월말쯤 출범하게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BC 경기·인천지사 공식 출범

수원에 본부·인천, 성남·용인, 고양·의정부등 3개 지국 총괄

MBC 경인지사(지사장 이용석)가 9월 1일 공식으로 출범했다. 경기-인천지역 1400만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MBC 경인지사는 수원에 본부를 두고 인천지국과 성남·용인지국, 고양의정부지국 등 3개지국으로 운영된다.

MBC는 경인지사 산하에 보도국 수도권부 기자들을 전진배치해 수도권과 경기 일원의 각종 정보와 뉴스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편 9월 1일 수원시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창립행사에는 사우회에서 강영구 회장이 참석해 경인지사 출범을 축하해 주었다.

보도 공정성 강화, 시청자 중심 방송으로 개편

11월1일부터 가을개편, 핵심은 선택과 집중

본사는 11월1일 부터 가을 개편을 시행, 9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6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으로 보도공정성을 강화하고 오락 프로그램은 시청자 참여폭을 넓히고 더 큰 재미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가을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주말 뉴스데스크가 오후 9시에서 한시간 앞당겨 오후 8시대로 이동편성된다.

뉴스데스크 시간대 변경은 주말뉴스데스크가 첫방송된 1968년 이후 42년만이다.

주말뉴스데스크 오후 8시로 42년 만에 바뀌

「스타오디션 위대한 탄생」등 오락프로그램 강화

이는 주말 저녁 시청자들의 뉴스시청욕구가 평일보다 앞 시간대로 당겨졌다는 시청자 뉴스시청 행태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본사는 시간대 변경을 계기로 뉴스 포맷에 변화를 꾀하고 심층기획을 강화하는 등 차별화된 뉴스를 전달할 계획이다.

오락부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신설이다.

「스타오디션 위대한 탄생」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보통사람들'이 시청자들에게 직접 스타성을 검증받는 무대를 제공한다.

신설 및 폐지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신설 6개 프로그램

- ①스타오디션 위대한 탄생 ②미라클
- ③여배우의 집사 ④뉴스와 정보매거진
- ⑤아름다운 이들을 위한 콘서트
- ⑥시추에이션 다큐 세상사 傳

▶폐지 9개 프로그램

- ①6:30분 뉴스 ②주말의 명화 ③스포츠 하이라이트
- ④최윤영이 세계다큐기행 ⑤음악여행 라라라
- ⑥명예가 추천하는 약이되는 밥상 ⑦김혜수의 W
- ⑧여자가 세상을 바꾼다 원더우먼 ⑨후플러스

청주MBC

TV...CH 33 AM...1287KHz
표준FM... 107.1MHz FM...99.7MHz

MBC와 함께 한 40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361-8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52-8 청주문화방송
Tel (043) 229-7114 Fax (043) 239-7827 http://www.mbcccj.co.kr

사우회칼럼

만학의 즐거움

前 MBC아카데미 사장
이 건 세

울면서 집으로 들어 온, 어린 손숙오에게 어머니가 그 영문을 물으니 “듣건대 머리가 돌 달린 뱀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것을 봤으니 어머니를 두고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어머니가 “뱀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다른 사람이 또 볼까 염려되어 죽어 묻었습니다.” 하였다. 어머니는 “내 들으니, 음력이 있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 보답해 준다고 했으니,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그는 장성하여 초나라의 정승이 되었다.(소학 가언 편) 이글은 소학에 실린 것으로 그 옛날 8살짜리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면 처음으로 배우던 글이다. 진정 세상물정을 모르는 철부지 코흘리개라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큰 울림으로 가 왔을까 생각해 본다.

오래 전 불현듯 직장을 떠나는 날이 닥쳐오자 드디어 꿈꾸어 오던 자유로운 삶을 한번 누리보기로 했다.

그 어떤 목표나 동기 없이, 그저 내가 가장 싶은 일로 남은 시간을 충실히 채우리라고 다짐하면서... 하지만 막상 굴레 속을 벗어나 무한히 펼쳐진 시간 앞에 서자, 무엇 하나 손에 대지도 못한 채 그러저럭 시간을 촉매해 초라하고 무기력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마치 오랜 세월 구속된 삶에 길들여져, 자신을 얹매어 온 부자유를 그리워하는 수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한동안 방황한 끝에 3년 전부터 한문공부에 들어섰다. 1주일에 4일, 하루 3시간 수업, 연습과 복습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책상

四書五經 지난시대 잔해가 아니더이다

무한시간 앞에서 방황끝에 한문공부길 택해

앞에 앉아서 새로운 세계에 탐닉하다 보니 어느덧 논어, 맹자, 주역, 예기, 춘추 등 四書五經에 史記, 古文眞寶, 周書百選 등을 부분부분 섭렵하여 이제 80 여권의 원전과 해설집으로 제법 의젓하게 책장을 장식하게 되었다. 그 동안 새로운 물결에 휩쓸려 이미 지난간 시대의 잔해로 치부해 왔던 경전이지만, 지금 내게는 다시금 소중한 가르침으로 되살아 나, 서책을 펼칠 때마다 연신 감탄과 아쉬움을 자아나게 한다.

오래 세월 문(文), 사(史), 철(哲)의 정수가 응축된 이 세계를 조금이라도 일찍 익히고 나서 세상살이를 시작했다면, 지난 내 생애가 얼마나 윤기있고 풍요로웠을까.

그러나 아직도 그리 늦지는 않은 듯, 세상공파를 웬만큼 겪고 나서 하는 공부라 숨은 이치를 터득하기엔 한층 수월하다.

이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실용을 위주로 삼는 학문(爲人之學)이 아닌, 스스로를 위해 자신의 내면을 다듬는 학문(爲己之學)의 세계에서 뒤늦게나마 공부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

오늘은 우화와 비유로 일상을 뛰어넘는 장자의 장대한 변설에 귀를 기울여 본다.

- 무릇 큰 도는 도라는 이름이 없고, 참된 변론은 말을 하지 않고, 지극한 인(仁)은 인정에 구애받지 않으며, 진정한 염치는 하찮이 사양하지 않고, 큰 용기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이 사람!

배드민턴 30년 이웅재

"배드민턴과 종교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들어요"

"30년 넘게 함께 했으니 배드민턴은 제 삶과 같아요."

지금도 매일 새벽 배드민턴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웅재 전 MBC 제작지원부장.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그의 배드민턴 사랑은 30년이 훌쩍 넘는 지금도 변함없다. 배드민턴만큼 매력적인 스포츠는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섬세하고 까다로운 운동이에요. 테니스처럼 격렬하고 열정적이면서 탁구처럼 세심함을 요구하거든요. 다양한 기술도 필요하고요. 다른 운동도 많이 해봤지만 배드민턴만큼의 매력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지금은 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배드민턴을 시작한 계기는 출퇴근길에 보게 된 삼청공원의 노인들이다. 30대의 그에게 배드민턴을 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저 노인들이 저만큼 하는 정도면 나도 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러나 라켓을 쥐고 몇 번 치는 순간 그의 그런 생각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서툴룩이 가볍게 오고 가는 모습을 보고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쳐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게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덕분에 건강은 덤으로 얻었죠."

시작됐지만 그에게는 운명이 됐다.

"집안사람들이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80년대 초에 제가 사당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압구정동에 살던 처제가 와서 무작정 교회가자면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됐어요. 사당에 있는 교회를 가도 되는데 굳이 압구정동까지 간 거죠.

그런 게 하나의 운명 같아요."종교를 믿으면서 그의 삶은 많은 것이 달라졌단다.



MBC에드컴에서 시작해 MBC 사업단, 기획실, 관리부, 제작지원부 등을 오가며 일하면서도 그가 세운 원칙은 단 하나.

신념이었다.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고 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한 번은 아는 아주머니한테 '퇴직하고 나면 작은 식당을 하나 차릴 테니 주방장으로 와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 아주머니한테서 연

락이 온 거예요.

식당은 언제 차릴 거냐는 거였죠. 그 때 아차 싶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 말이었지만 아주머니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고 앞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였죠.

물흐르듯 살면서 욕심없이 나누는 삶이 최고라 생각

격렬하고 섬세한 배드민턴의 매력, 건강은 덤으로 얻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배드민턴에 쏟아 부은 열정 덕분에 시·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해 받은 메달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회에 출전하는 건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메달을 따냈다는 목표보다 배드민턴을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배드민턴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배드민턴이 그의 삶의 일부라면 또 다른 일부는 바로 종교다. 종교 역시 우연으로

지금도 다른 사람한테 물려줬지만 말에 책임을 졌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65세까지는 주어진 삶이고 나머지 삶은 덤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지금은 덤의 인생을 사는 만큼 욕심 없이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단다.

"길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후회 없이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평범하게 물 흐르듯 살면서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최고죠."

박성희 기자 birdy23@naver.com

동호회 가을철행사 일정

등산대회 : 10월 27일(수) / 북한산

등산대회(회장 김진호)는 10월 27일 (수요일)에 실시된다. 전례에 따라 이번 등산은 구기동 현대빌라 앞에 모여 북한산 포곡정사 코스를 오르내린다.

출발 시간은 오전 10:00.

사우회는 참가하는 회원들에게 등산용품 선물과 함께 정성을 담아 준비한 점심식사를 제공한다.

낚시대회 : 10월 13일(수) /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수로

가을철 낚시대회(회장 정종국)는 10월 13일(수)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수로에서 실시됐는데 32명의 회원이 참가해 월척의 의지를 불태웠다.

산업시찰 : 11월 2일(화) / 청주

원로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시찰은 11월 2일(화)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산업 시찰은 청주MBC(사장 윤정식)의 초청을 받

아 속리산과 청주지역 주요시설을 둘러보게 된다.

바둑대회 : 11월 18일(목) / 사우회 사무실

바둑대회는 11월 18일 (목요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바둑동호회(회장 신대근)는 11월 13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5급 이상의 A조와 6급 이하의 B조로 조를 나누어 대진표를 짜게 된다.

골프대회 : 10월 7일(목) / 충주 중원CC

10월 7일 (목) 충주 중원골프클럽에서 실시된 골프대회(회장 김용빈)에는 7개팀 28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춘계대회 핸디적용 방식으로 박수부회원이 우승했다. 골프대회 수상자 및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우승 입부 박수부 / 준우승 기술 문정철 / 행운상 입부 김철순
니어링리스트 보도 안재기 / 김두상 판제 정인영

편제 이시권 / ANN 입주완 / 보도 김광목 이병구 김철호 신대근 김강정 / 입부 김은식 이용구 이두표 이혜걸 / 관리 심규성 노성석 이상수 백하현 정경석 정태모 / 기술 김종현 김형국 오정수 권태섭 / 관계 최영웅 / 충주 이상실



경조사항

결혼

정영환(보도)아들 9/4 권항택(전주)차남 9/4 김정환(편제)장남 9/11
정재호(관리)장녀 9/18 고영일(업무)장녀 10/2 이성구(대구)차남 10/9
심우승(편제)차남 10/9 전종철(관리)차남 10/9 박홍배(전주)차남 10/10

부음

이영삼(편제)장인상 7/19 김정일(관리)모친상 7/20 김홍기(보도)모친상 7/24
엄용열(대구)장모상 7/24 홍성목(관리)모친상 7/30 김정제(관리)시부상 7/30
이명기(편제)모친상 8/8 이봉수(편제)장모상 8/14 방영희(편제)시모상 8/26
이상범(관리)모친상 8/30 김영원(관리)장모상 9/6 박영선(보도)시부상 9/16
최규철(편제)모친상 9/17 김현철(편제)장모상 9/27 박선영(보도)시부상 10/8

- 전용인(기술)회원 7월 31일 폐암으로 별세, 향년 84세. 5년전에 폐암 수술을 받으며 있으며 지난해 12월 부인 사별후 상심이 컸다고 가족들이 전했다. 48년 육사출업, 63년 MBC입사 후 초대 기술국장, 기술이사를 지냈으며, 72년에 대전MBC사장 역임 후 73년에 퇴사했다.

- 김용(Ann)회원 8월 21일 별세, 올해 69세. 2002년 5월 28일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8년 3개월 동안 의식불명인 채 투병해왔다. 1969년에 MBC에 입사, 아나운서실장, 안동MBC사장, MBC아카데미 사장을 역임했다.

경사

팔손 | 강병남(전주)10/08 안호선(관리)10/25 진필호(편제)11/2
공대식(보도)12/1 이수극(업무)12/17

고희 | 강영구(보도)10/4 문경득(미주)10/8 유순옥(대구)10/13
장 용(기술)10/23 고성광(보도)11/1 송기태(전주)11/9
임봉주(기술)11/16 이진봉(전주)11/22 서동식(관리)11/23
허영상(관리)11/25

회갑 | 이철범(편제)10/1 나일수(관리)10/16 김창수(기술)11/18
홍기풍(보도)11/18 조위식(기술)11/21 박유명(관리)12/16

전화/주소변경

[편제]
김관영 010-5395-8833
김종연 010-9172-5020
심우승 고양시덕양구성사1동 대림A 111-1903
임광혁 010-8809-2393

[기술]
김용빈 010-5314-8384
유병대 010-6283-4582 서초구반포1동
반포자이127-402
정태웅 02-6229-5808
성북구갈음동1281갈음뉴타운419-1304

[관리]
김재수 양양군강현면회룡리343 상설원
방운식 수원시장안구용화동 347-8(1층)
송인의 010-2929-8026
구로구오류1동 6-91
양남중 010-5108-6820

오범성 070-7554-2582
정보균 강남구도곡동895-8 도곡한신A 2-1002
정영수 010-9067-7850
최동윤 은평구진관동88 은평뉴타운우물골 222-702

[ANN]
박중순 010-2507-9503
성남시분당구구미동 하안마을 308-302
송재익 용인시수지구성북동731 성동마을
LG빌리지 605-2003

[업무]
이원형 010-2652-1698

[보도]
김용철 010-5384-0010
김정수 중랑구망우본동 514-107
김택곤 010-5249-9317
노웅래 010-8915-2394
이대우 010-8181-4044

장 경 용인시기흥구마북동 현대그린필 103-601
장영준 010-9105-1241
정진철 070-8222-3244
용인시수지구동천동417-5
래미안아트펠리스 1104-1802
홍기룡 031-591-0416
남양주시화도읍창현리329-1 영남탑스빌 101-1502

[부산]
정판식 010-4551-7171
[대구]
김상호 010-3829-3322
경산시중방동895 e편한세상306-702
이성구 대구시남구봉곡2동 삼성래미안 102-2303

[전주]
남궁용영 제주도 서귀포시상례동1613 힐사이드 B-302
박홍배 010-3920-1997

연회비 내신분들

*연회비 납부는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시우회

평생회비

이종열(관리)7/16 조국환(관리)7/19 김성규(관리)7/22 최낙호(관리)7/29
손진우(편제)8/4 김종관(업무)8/16 한순애(관리)8/17 김정수(편제)8/30
정성만(보도)9/9 최규철(편제)9/10 손원록(관리)9/28 김영원(관리)9/28
김중윤(기술)10/1

연회비

7월 고훈복(09~10) 김강정(10~11) 김정일(10) 김성규(06~09) 김성한(08~10)
김성희(09~11) 박영일(06~10) 백재인(05~10) 서규석(08) 송윤섭(06~10)
염재용(11) 이재원(10) 장용택(08~09)
8월 강홍신(11~15) 경진근(09~10) 고춘호(07~10) 박노우(09~10) 김정환(09~10)
김종순(10~12) 유민환(10) 윤현근(10~11) 이명기(03~10) 이영호(10)
임광혁(06~10) 정보균(08~10) 홍성목(08~10)
9월 김경준(07~10) 김영원(09) 김택곤(04~18) 윤여중(13~20) 정재호(09~10)
채규익(09~10)

신규입회

7/19 曹國煥(관리) 011-761-1672 02-2684-6090 영동포구대림2동1122 신대림자이 201-802
8/04 孫鎮宇(편제) 010-9199-5870 031-982-7059 김포시풍무동583-6 유현마을 106-1402
8/16 金鍾寬(업무) 011-9933-2619 02-536-4505 동작구 사당동 169-8 대림A 10-1002
8/17 韓順愛(관리) 010-9105-2841 마포구공덕1동 삼성래미안공덕2차 109-403
8/30 金晶洙(편제) 011-755-1364 031-901-7049 고양시일산동구마두1동 백마마을 401-102
9/09 鄭成萬(보도) 011-786-6083 02-522-2210 서초구방배1동 169-24 방배한화A 101-704
9/10 崔圭徵(편제) 010-9105-1382 031-942-9320 파주시교하읍산남리 84-77
9/28 孫元祿(관리) 011-748-0712 02-484-4278 강동구둔촌동 174-1 주공A 210-204
10/1 金鍾允(기술) 010-2506-4620 070-8112-1079 도봉구 쌍문3동 315-108

MBC 경제살리기 캠페인

사람이
희망입니다

당신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향해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MBC

하쿠나 마타타 근심걱정은 떨쳐 버려!

우간다 의료봉사기
은평천사원 나눔센터관장 이창식

▶ 이창식관장(가운데)과 가수 서수남씨(왼쪽)가 현지주민들에게 옥수수가루등 식량을 나눠주고있다

옥수수 가루인 포쇼를 주식으로 하루에 1,25달러면 생존이 가능한 나라, 인구 3000여만명중 14세 이하가 50%로 평균연령15세, 예상수명 52세, HIV/AIDS 성인감염률 4.1%의 환자와 그냥 어울려 비비고 사는, 전기절대부족으로 도시외는 가전제품이 필요 없는곳, 수돗 물이 없어 빗물을 받아 먹고~ 풍토병인 황열병이 상존하고 말라리아를 감기처럼 몸에 달고 사는, 몸에 상처가 나면 그대로 방치하고 그 안에 벌레가 생겨도 맨발로 걸어다니는 어린이들이 도처에 있는 우간다~. 걱정과 웅원소릴 뒤로하고 8월 더위와 폭우가 쏟아지는 한국에서 적도가 지나가는 나라로 떠났다.

학교,교회 빌려 천막 의료센터 설치, 고아 주민 등 5천여명 진료 투약
예비의료인 대학생·의사·가수 서수남등 코리안 의료봉사팀 12일간 체류

우리 대사관은 이웃 케냐에 있고 로밍해간 휴대폰에선 외교부 콜센터 전화번호가 수시로 뜬다.국립의료원 의사의 권유로 황열병, 장티프스, 패혈증,페렴주사등을 집중하고 말라리아 예방약을 출국 3일전부터 복용,무장했다.
인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항공으로 두바이,아디스아바바바드를 거쳐 이스라엘 특공대 기습작전으로 유명한 엔테베공항에 착륙한다.
바로 흙길을 마따두라는 승합차로 6시간 달려,충든 군인들에게 검문을 당해가며 첼조조 숙소에 도착하니 집 떠나 30시간만이다.
이스라엘 특공대와 비교 할 성질은 아니나 그들은 자국민을 폭력으로 구하려는 작전이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선발된 대학생 28명과 의사등 30명과 서수남 홍보대사등 촬영 팀등 36명으로

8월12일부터 23일까지 전국대학생봉사단 30여명을 이끌고 서수남(가수)홍보대사등과 함께 우간다 캄팔라 등지에서 고아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구성된 코리안 의료봉사팀이었다. 현지의 헬스워커,간호사,5명의 운전기사를 포함하면 50명이었고 식수인원은 60명이 넘는다.

완전히,현역 때의 야외복화 세트장이다. 사고 없이 하루에 500명을 소화하러 하니 책임자로서 여간 긴장하는 게 아니다.

주로 의료,생명공학,간호계통 학생들로 구성되어 두 달간 예행연습과 세 차례의 1박2일의 의료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자체연수 했다.

한국이 6시간 빠른 시차가 있지만 다음날 아침부터 강행군이다.우리가 간 목적은 직접 후원,관리하는 고아원방문과 인근 6개 마을의 순회진료 의료봉사,그 지역의 토로왕국 업무방문이었다.

미션이코아원 '홈오프 캠퍼온' 고아원 봉사방문, 매일 1개 마을씩 인근 6개 마을 순회이동진료, 마을 축제 운동회,음식교류, 문화체험 등으로 이어진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환영송을 부르는 기타를 들고 고아들속으로 들어가 30년전의 어린이가 마을 식으로 노래교실을 진행한다.

놀라운 것은 한 두 번만에 멜로디와 울동을 익히니 아프리카인들의 예능 DNA는 알아줄만하다고 새삼느꼈다.나 역시 촬영감독을 대동했으니 더 할 나위 없이 펄펄 생기가 나는 현역기분이었다.

의료봉사는 키슈와라 마을 등 6개 마을에서 매일 500명씩 합하여 3000명을 진료 하였고 1000명

육팀,여성교육팀,아동교육팀,문화프로그램은사물놀이, 태권도,부채춤을 한복과 함께 준비했다. 몇 시간 켜 맨발로 걸어와 변호표를 받고 장시간 조용히 기다리는 눈매들을 잊을 수 없다.

방치된 상처를 치료하고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아동들에게 칫솔질 시범교육, 여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선발된 학생들에게 태권도 도복을 입혀 단시간에 기를 넣어줬다.

눈에 띄는 팻말이 시선을 끌었는데,어린학생들에게 전혀 어울리지않게 "VIRGINITY IS HEALTH"와 "CHOOSE TO DELAY SEX"였다.

우리 교정에는 "불조심"정도인데 에이즈가 얼마나 여기선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뜻말이었다. 고아원에서의 마지막 날은 양국국기를 게양하고

칫솔질과 성교육, 태권도도 가르쳐
인근마을서 물려와 변호표 받고 몇시간씩 대기

음식을 나누며 한복입은 한국여대생들의 부채춤은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사물놀이는 현지 마을 축제와 어울려 다 같이 원을 그리며 땅을 박차고 30분간 뛰어 지구촌 가족을 실감케 했다.

그런데 특기 사항은 각 이장들 유지들의 지루한 연설순서였다. 보통 4시간 30분 걸린다 하여 각자 5분으로 제한했는데도 통역까지 있으니 1시간 정도 걸렸다.

별다른 오락이 없는 곳에서 연설은 그 자체를 소동과 연예?의 일종으로 즐기는 듯 했다.

아이들이 고맙다고 껴온 대나무 같은 사탕수수를 씹으며 얼핏 "우리가 불쌍하다고 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OECD국가 중 한국인이 37분 만에 한 명꼴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데 늘 웃고 있던 그들과 모습이 비교된다. 또 토로왕국에서는 땅 만평을 준다는데 콘텐츠는? 시업비 마련은? 그들 말대로 "하쿠나 마타타"(걱정근심 떨쳐버려!)다.



현장에 천막(아래사진)을 치고 주로 학교나 교회를 빌려 지휘부,진료팀,접수 및 예진팀,의약품배포팀,치아교



MBC+ MEDIA

MBC DRAMA

MBC GAME

MBC ESPN

MBC LIFE

every

www.mbcplusmedia.com

함께
우리 가족은 TV를 본다!



은 가족이 함께 즐기는 TV MBC+ MEDIA

MBC플러스미디어는 언제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기업입니다.

MBC플러스미디어는 드라마 전문 채널 MBC드라마넷, 버라이어티 전문 채널 MBC에브리원, 게임 전문 채널 MBC게임, NO.1 스포츠 채널 MBC ESPN, 생활 문화 다량채널 채널 MBC라이프 등 5개 채널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MBC ESPN

MBC GAME

MBC every

MBC DRAMA

MBC LIFE

ESSAY

라디오 르네상스 그 때를 아십니까?



황기찬

前 MBC방송문화원
(현 MBC아카데미) 상무이사

신문 대학교에서 '라디오 제작론'을 강의할 때, 라디오 제작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제작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있었다. 아날로그 시대에 퇴역한 나는 부지런히 책도 보고 현업의 후배들에게 질의도 하면서 디지털 제작에 대응했던 기억이 있다. 1970년대 초반까지 황금기를 누리던 라디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업TV 시대를 맞으면서 심각한 위기의 국면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 라디오 광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돈 꾸러미를 들고 줄 지어 섰던 동아 바카스, 닭표 간장, 진로 소주 등이 TV 쪽으로 줄줄이 줄을 바꾸어 서기 시작한 것이다. 스폰서 없는 상업 방송이라니. 그 때만해도 뉴미디어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으므로 라디오 맨들의 위기감과 상실감이 심각했고 이를 극복하고 돌파하기 위한 대책도 방안

어떻게 하면 라디오의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라디오 맨들은 김규 등 방송학자와 이어령 등 문명비평가 또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라디오의 재발견' '라디오 언어' '라디오 르네상스' 등 많은 세미나와 토론 또는 발표회를 거듭하면서 방송의 미래를 가늠하고 그 가운데서 라디오의 새로운 활로를 발견하기 위해 치열하게 애를 썼다. 그리고 프로그램 콘텐츠의 고급화 및 정보화, WIDE화, PERSONALITY화, LIVE화가, 라디오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오락성에서 교양성으로 프로그램 콘텐츠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지금까지는 거의 토막토막 이어지던 프로그램들을, 한 시간 두 시간짜리 와이드

이용하여 생방송으로 수용가들에게 서비스하자는 것이었다.

오늘 날 우리가 체험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패턴은 그 때에, 그렇게 구축된 것이며 라디오는 단합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

당시, 서구식 전 방문진 이사장님(당시 라디오 편성국장)의 리더와 격려는 4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너무 생생할 뿐이며 MBC 라디오 사상 그 때처럼 라디오 맨들이 하나로 뭉친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옛그제, 울산에서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고 2012년까지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종료된다는 뉴스를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CATV, 위성방송 등이 지상파의 영역을 잠식하며 이익을 다투고, 방송과 통신의 벽은 무너지고 있으며, 해외 방송 자본이 상륙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종합 편성의 채널들이 탄생 직전에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스마트 TV의 상용화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한 때 라디오의 위협적 매체였던 TV도, 새로운 미디어의 도전과 빠르게 변화하는 안팎의 방송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점인 것이다.

방송이, 결코 寧日이 없는 세계임을 깊이 인식하고 MBC 맨들이 평소에도 위기의식을 느끼며 한 마음으로 뭉쳐서 뉴 미디어와 그리고 빠른 방송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하는 마인드로 임할 때에 MBC의 위기는 영원히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



70년대 초 황금기를 구가하던 라디오 상업TV 등장으로 위기봉착 오락에서 벗어나 콘텐츠 고급화·정보화, 와이드화, 라이브화로 돌파

도 마음만 앞설 뿐이었다.

그러나 라디오의 위기는 라디오 맨들의 마음을 뭉치게 했고 공동 운명체임을 절실하게 인식하게 했고 드디어는 '라디오 르네상스'를 외치게 했다.

로 편성해서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높이고, 'xxx'의 ooo'처럼 프로그램 진행자 이름을 앞세워 진행자의 우호적인 퍼스널리티로 접근하고, 녹음방송 위주이던 방송을 라디오의 속보성과 기동성을

회원인사동정



오명환(편제)

오명환(편제)

MBC시청자위원 위촉
용인송담대학교수.
8월25일 2010~2011 MBC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됐다. 시청자위원은 1년동안 MBC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논의를 하게된다.



이연현(편제)

이연현(편제)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심사위원 위촉
진주 드라마페스티벌에서 특강
사우회상임부회장. 문화체육관광부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0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10월7일~12일)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부회장은 이에앞서 9월 29일 경남 진주에서 개최된 '드라마 페스티벌'에서 '드라마와 국민성'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아시아 각국의 드라마 경향을 주제로한 국제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창봉(전 사장)



이병훈(편제)

최창봉(전 사장)
이병훈(편제)

미디어발전 공헌상 방송분야 수상자로 결정
최 전 사장과 이 전 PD는 한국언론학회가 저널리즘 및 방송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미디어발전공헌상의 방송분야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16일 오후 6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83동 305호에서 열린다.



전평국(보도)

전평국(보도)

경기대 예술대학 학장취임
경기대 영상학과 교수.
올 3월 경기대 예술대학 학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2012년 3월까지.



편일평(보도)

편일평(보도)

제37회 한국방송대상 뉴미디어 작품상 수상
MBC플러스미디어에서 제작한 문명다큐멘터리(에이퍼로드·편일평 작)가 제 37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뉴미디어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대우(보도)

이대우(보도)

군장대학교 석좌교수 임명
MBC문기회회장. 전북 군산에 있는 군장대학교 석좌교수로 추대돼 지난 9월학기부터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이다.



한박무(보도)

한박무(보도)

방송통신심의위 특위위원 재위촉
MBC사우회보 편집장.
9월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교양·방송 부문 특별위원으로 지난해 이어 재위촉됐다. 임기는 2011년 9월17일까지 1년 간이다.

박순호(관리)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에 오리전문 수상가든 개업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에 두부와 오리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수상가든을 8월 7일 개업했다.
(043-853-6306)



김용민(기술)

김용민(기술)

베트남서 3개월간 침뚫봉사위해 출국
사우회부회장. 한국정통침구학회 산하 효행봉사단의 일원으로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침뚫 봉사를 하기위해 3개월 예정으로 9월 24일 출국했다.

김부회장은 침구학회가 수여하는 침뚫요법사 자격증을 취득, 구당 김남수 선생의 제자모임인 뜸사랑회원으로 봉사활동을 해왔다.

정영환(보도)

판교 개척 샘물교회 책임자로 맡아
98년 명퇴 후 백세약국 약사로 12년동안 제 2의 인생을 살다가, 지난 6월에 개척된 판교 샘물교회 책임장로를 맡아 9월 5일에 첫 예배를 보고 제 3의 인생을 시작했다.

박한성(관리)

일본 돗토리현 다이센산 등반위해 28일 출국
산수마를 답사회총장. 10월 15일부터 4일간 중국 황산원정등산을 다녀온 뒤 다시 일본 돗토리현 다이센산을 등반 하기위해 일행 30여명과 함께 오는 28일 출국 할 예정이다.

|알림|

함께 통보신청

회원요청서 전 회원 통보로 확대

사우회는 회원들이 땀을 닦았을때 부분별로 문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문에 관계없이 알려달라는 회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회는 현재의 부분별 통보 원칙은 지키되 전 부문 합동으로 알려달라는 회원들의 요청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 회원 부음소식을 알기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사우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MBC

2011

강릉MBC 연중캠페인

당신의 열정,
강원도의 힘!



강릉시 포남2동 가작로 267 Tel:(033) 650-2114 / Fax:(033) 650-2147 www.gnmbc.co.kr